

설 명절 에 드리는 예배

설 감사예배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인도는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식 사 인 도 자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 이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 도 가 족 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설을 맞아 믿음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과 죄악 중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올해는 이 땅에 코로나가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 영육 간에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세워가는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과 비전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아멘 -

성경봉독 신명기 31장 6-8절 인 도 자

“6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7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 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인 도 자

찬 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같 이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기도문 다 같 이

◆ 설교말씀 :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며 당부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 우리 인생의 주관자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길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7절)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세나 여호수아는 모두 일꾼에 불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우리 가족 모두에게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6, 7절)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욱 주눅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6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어떤 음성보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게 해드려야 합니다.(8절)

하나님께서 조급한 마음이었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8절) 나의 힘만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지치고,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보다 앞에서 가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 가시게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먼저 앞에서 가게 하심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2년

설 명절에 드리는
예배



기독교 대한감리회 | Haneul Sansung Methodist Church

하늘산성교회

05759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7길 6